

2018.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사 | |
| 2018.12.26 | 대전MBC 대회의실 | 7/11 | 7 | |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김경희, 함진호, 이용원, 양선희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8 | 8 | - | - | 16 | - | 16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13 | 3 | - | 16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9건 | 9건 | 12월 |
| 보도 | 과학도시 대전의 역량을 조명하는 기사 발굴을 | 뉴스데스크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의족 개발”(12/12) “대전시 국제청소년 로봇대회 유치(12/4) 등 보도 | 12월 |
| 교양 | 로컬푸드, 청년 농부 등 소재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길 | 교양프로그램(아침이 좋다) 12/26 “산청 논두렁밭두렁 플리마켓” 12/21“당진백석면 한과마을” 소개 뉴스투데이(12/19) “세종시 로컬푸드” 보도 | 12월 |
| 보도 |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자막처리를 | 시사토론M(12/23) "잇단 산업현장 사고, 막을 수 없나?" 등 방송 중간 자막처리 | 12월 |
| 보도 | 뉴스투데이(아침뉴스)에서 “투데이 핫무비” 영화 소개 의미가 있는지 | 뉴스투데이에서 영화 소개란 코너 폐지 | 12월 |
| 보도 | 가짜뉴스를 사전에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 | 보도국 기자의 취재과정과 기사송출 전 게이트키퍼하고 있으며 보도국 기사 이외의 것을 기사화할 경우도 사전에 필터링 하고 있음 | 12월 |
| 보도 | 대전 월평공원 개발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인 보도 필요 | 데일리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고 유튜브 뉴스채널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2Fe7KOYO3Vs3w2H6wnuTotBIT55iZvTt 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소개 | 12월 |
| 교양 | 지역사회 신뢰회복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 시사플러스 “다문화사회 공존을 위한 교육방안은?”(12/10). “연탄으로 전하는 사랑의 온기”(12/3) 등에서 신뢰회복 구축 메시지 전달 | 12월 |
| 교양 | 청년들의 일터, 청년 창업 등 청년 관련 프로그램 소개를 | <아침이 좋다> 생활정보프로그램에서 “청년예술가(12/7)”, “청춘 함께해서 더 즐겁다(12/19)”, “스물여덟 팔의 장인(12/20)” 등 청년들 소개 | 12월 |

| | | | |
|----|--|--|-----|
| 보도 |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 뒤 세트에 올려놓는 이미지사진(얼굴) 패널얼굴과 겹치지 않게 | <시사토론M>에서 세트에 설치한 배경 화면 사이즈 조절(12/23) "잇단 산업현장 사고, 막을 수 없나?" 등 | 12월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청내용 | 조치내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 성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없음 |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 홈페이지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분 | 비고(임기) |
|-----|-----|-----------------------|------------------------------|--------|-----------------------|
| 위원장 | 신성철 | KAIST총장 |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 과학기술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송길현 |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 목요언론인클럽 | 언론관련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김경희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 여성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함진호 |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ETRI | 과학기술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권부남 |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 대전YWCA | 청소년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정대식 | 금성백조주택 사장 | 대전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인 | (사)문화유산올림 | 문화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김은주 | 변호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김종남 | 대전YMCA 사무총장 | 대전YMCA | 소비자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양흥모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 학부모단체 | 18.05.01~ 19.04.30 |
| 위원 | 양선희 |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 충청언론학회 | 언론관련단체 | 18.05.01~ 19.04.30 |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2월)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교양 | 퍼스널 이미지 코칭 전문가(12/17, TV특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움의 비밀)라는 김주미씨의 강의는 작위적이고 진정성이 없게 느껴졌다. 그리고 늘 느끼는 점인데, 방청객의 반응도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보기 거북하다. TV 특강은 대체로 별 내용 없는 강의를 거의 50분간이나 늘려서 하는 것 같다. 공중파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조금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강의를 듣고 싶다(김든주). | 과한 방청석 리액션 동의한다. 제작에 반영하도록 외주사에 전달하겠다. 더불어 감사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 | ○ | | |
| 교양 | 미세먼지의 원인(12/17, 시사플러스, 일상을 바꾼 미세먼지)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생각했는데, 충청남도에 밀집된 석탄화력 발전소, 대산 석유화학단지, 당진의 제철제강단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충남지역에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비율을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간략하게만 언급되어서 약간 아쉬웠다(김은주). | 해당 부분은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시청자들의 궁금한 점에 주목해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 ○ | |
| 보도 | 시사토크M “대전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과 향후 전망”(12/2)을 시청하였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토론주제로 선정되어서 반가운 마음이긴 했지만, 토론으로 하기는 약간 식상하거나 진부한 주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12월의 경우 대전 MBC는 잇단 산업현장 사고 막을 수는 없나,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대안은, 이글스와 시티즌이 남긴 2018의 기록과 과제, 대전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고, KBS대전은 2019 대전 방문의 해 얼마나 준비됐나, 음주운전 처벌강화, 월평공원 공론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했고, TJB는 온정도 쫓고 공기부확산 해법은, 대전세종 교통통합 어디까지?, 대전방문의 해 성공조건은? 으로 토론했다. 대전MBC는 조금 더 시사적인 내용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주제선정은 약간 식상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방송시 |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고민하겠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주목도 높은 주제,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주제를 찾도록 하고 전달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주제의식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방송시간은 편성국 소관사항으로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 ○ | | |

| | | | | |
|----|--|--|---|---|
| | 간이 대전MBC는 일요일 오전 8시10분인데, TJB는 방송시간이 토요일 오전 9시 10분이기 때문에 TJB가 조금 더 편하게 접해진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대안은' 토론에서, 한 패널이 탁상용 달력에 통계를 붙여와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통계표가 잘 보이지 않았다. 방송사에서 미리 패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전달이 더 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방송제작에 성의가 좀 없게 느껴져서 아쉬웠다(김은주). | | | |
| 교양 | UHD특집 다큐멘터리 신 주방문 2부 “물과 불 사이에 술이 있다”(12/2) 전반적으로 전체구성이 깔끔하고 CG 등도 좋았다. 진행자인 외국인 다니엘 린데만의 역할도 좋았다. 우리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공주 백일주, 동춘당 술 장인, 당진 전통주 내용도 잘 담았고 전통주의 앞으로의 모색도 외국사례를 비교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다고 본다. 창사특집으로 손색이 없는 좋은 작품이었다(송길현) | 최초로 시도하는 UHD 다큐멘터리였다.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남긴 작품이었다고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드린다. | ○ | |
| 보도 | 12월 10일 뉴스데스크 방송 순서를 살펴보면 1.대전특구 파견, 용역직 500명 파업 돌입, 2.목원대 청소노동자 근로시간 단축 반발 3.찜질방화재 막은 직업정신 4.정부 내년 예산 확정 지역현안 어떻게 5.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신호 6. 2019 대전 방문의해 순이었다. 뉴스편집자의 가치에 따라 뉴스 순서 배치가 결정되겠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담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TOP뉴스를 과연 “용역, 파견근로자 농성”을 다루는 것이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송길현) |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정책방향이기도 한 정규직화와 관련해 정부출연연에서 벌어지는 노동이슈가 가장 첨예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탐 블록에 배치했다. 뉴스 편집에 있어서 보다 많이 고민 하겠다 | | ○ |
| 교양 | 모든 것 연구소 올랩 스튜디오 세트가 바뀌었다. 패널들 간 간격이 너무 좁아 간격을 넓혀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게 해 주면 좋겠다. 카메라로 패널들 모습을 포착하기에 힘들지 않겠는가(김종남). | 공개홀이 아닌 외부 제작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외부에서 진행하다보니 100%를 만들어 내기 힘든 점이 있다. 의견 참조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 | |
| 보도 | 시사토론M(12/16)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대안은"에서 학업 중도 포기 학생들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섭외한 패널이 약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패널을 주제에 맞게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보다 노력하겠다 | ○ | |

| | | | | |
|----|---|---|---|--|
| | 다루는 관계자를 섭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본다. 주제에 적합한 패널을 섭외해서 토론 내용이 의미 있게 진행되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이길 바란다(김종남). | | | |
| 보도 | 중앙의 모 방송사가 “APT라돈 검출”문제를 조명하여 주부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지역 APT는 문제가 없는지 주부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 기획보도로 우리 지역 환경문제를 다루어 주면 좋겠고 라돈 문제도 짚어주길 기대해 본다(김종남). | 라돈 매트리스 사건 이후 라돈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11월 14일 <급수시설에서 최고 10배 방사성물질 검출> 12월 2일 <라돈에 악취까지 "못 살겠어요"> 12월 13일 <세종시 아파트에서 라돈 무더기 검출·전수조사 시급> 등 관련 보도를 취재해 적극 보도하고 있다. | ○ | |
| 보도 | 오래간만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다. 시사토론M(12/16)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대안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수능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다"는 인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의아했다. 또한 패널들 의견 중에는 현장의 이야기기가 적어 토론의 중심 방향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 패널 중 한 명이 통계자료를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선명하지 않았다. 사전에 제작진들이 이 자료를 받아 CG처리를 하였다면 더 좋을 것이다(권부남). | 사전 제작과 패널들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다 유의미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패널 섭외에도 신경쓰겠다 | ○ | |
| 보도 | 뉴스데스크(12/23)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공청회”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를 하였다.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공유자동차 문제, 공유 집 등을 편집하여 소개하였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내용 여러 가지를 짧게 편집하여 소개하다 보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 해주었으면 좋았겠다(권부남). |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 문제를 시청자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 | |
| 보도 | 충남 지역의 과수원, 밭작물, 딸기 등 농가 소득을 소개할 때 보면 주로 고소득 농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도를 한다. 물론 고소득 농가의 사례가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맘 흘리는 열심히 일하는 일반 농가에도 카메라를 비추주면 좋겠다(권부남). | 농어촌 문제의 소득 문제를 보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체 작물 재배의 가능성은 물론 6차 산업의 가능성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다. 특정 농어작물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하며 안내하도록 하겠다. | ○ | |
| 교양 | 시사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전문가를 진행자로 영입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탐사 저널리즘 프 | 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제작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적한 부분 염두에 두고 향후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 ○ | |

| | | | | |
|-----------|---|--|--|--|
| | <p>로그그램을 예로 들면 아이디어를 시민으로부터 받는 등 기획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을 듯싶다. 더 나아가 제작과정, 방송 후 피드백까지 시청자참여 외연을 확대해보길 기대해본다(양흥모).</p> | | | |
| <p>보도</p> | <p>“월평동 공원의 공론화 사례, 태안화력본부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고, 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무단 매각” 등은 올 해 대전MBC 보도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전MBC가 공영방송사로 정상적으로 궤도진입하여 신뢰회복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뉴스이었다. 이전에는 사측이나 행정기관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반갑다. 사회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공영방송사로서 신뢰를 더욱 구축하길 바란다(양흥모).</p> | <p>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와 분석이 있는 뉴스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에서 발생한 노동자사망 사건 보도는 단순히 현상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과 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국회에서 이른바 고 김용균법(산안법)을 개정하는데 방송 공기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p> | | |
| <p>교양</p> | <p>내년 대전MBC의 방송 방향은 따뜻함, 훈훈함 이런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덜 가진 자, 못가진 자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가 크다. 정보는 많이 접속하면서 못가짐에 대한 불만이 더욱 클 수 있다. CNN 방송사에서는 1년 동안 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미국 초등학생이 노숙자에게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연예인 위주의 프로그램 보다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이웃을 발굴하여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음을, 인정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발굴해 널리 전달해주면 좋겠다(신성철).</p> | <p>지역 방송으로서 최대한 지역민을 주인공으로, 또 지역의 존재 가치에 천착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 |
| <p>교양</p> | <p>주방문’은 조선 후기의 조리·양조서로, 대전MBC는 이번 특집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위해 직접 술을 빚어 사용하는 가양주(家釀酒, 집에서 빚는 술) 문화로 전해 내려온 1000여 종이 넘는 우리 술에 주목했다. 또, 전통주에 빠진 젊은 세대와 세계인들의 눈을 통해 우리 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주방문’을 재해석한다.</p> <p>1. ‘2018 제5회 UHD 영상 페스티벌’ (KT 스카이라이프 주최) 우수상 수상을 축하한다. UHD의 이점을 살려 장면별 고유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UHD 콘텐츠를 기대하고 싶다.</p> <p>2. 출연진 선정이 좋았다. 진행자인 다니</p> | <p>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UHD 프로그램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p> <p>차후에도 신주방문과 같이 우리의 전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p> | | |

| | | | | | |
|----|---|---|---|--|--|
| | <p>엘 린데만은 프로그램의 주제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터뷰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체득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본 프로그램 취지와도 잘 어울렸다. 내레이션의 목소리도 딱딱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편안한 분위기를 더했다.</p> <p>3. ‘전통과 다양성’이 다큐멘터리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우리 문화가 지속적인 한류콘텐츠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했다. 우리의 다양한 전통주나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독일의 맥주(독일의 맥주는 4천 종이 넘는다고 한다)처럼 과거의 전통을 쌓아오고 계승하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며, 사람, 지역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가 관건 아닐까 생각한다(정대식).</p> | | | | |
| 교양 | <p>삼한사미(三寒四微),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신조어다. 최근 우리의 일상을 바꾼 미세먼지, 이 불안과 공포는 방사능보다 더 크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항상 제자리 걸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처방법을 취재했다(12/17, 시사플러스).</p> <p>1.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우리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되, 유관기관 관계자나 환경 전문가, 의료계 설명, 기후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이 돼 좋았고 이해가 쉬웠다.</p> <p>2.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첨가해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위험성, 마스크 선택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p> <p>3. 미세먼지가 범국가적 관심사다. 유관기관 별로 대책을 설명한 것은 좋았으나,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도 어떤 노력이 연계가 되는 지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의견도 담았으면 어떨을까 생각한다(정대식).</p> | <p>최근 들어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에 집중했다.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누구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관심도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p> <p>지적하신 부분 참고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p> | ○ | | |